

삼국유사 소재 김유신 설화 고찰

— ‘영웅-되기’의 조건과 영웅성을 중심으로 —

이정훈(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영웅-되기’의 완성과 영웅적 면모 |
| 2. ‘영웅-되기’의 이전 조건 | 5. 결론 |
| 3. ‘영웅-되기’의 실현 과정 | |

〈국문초록〉

이 글은 삼국유사에 실린 김유신 관련 설화를 ‘영웅성’이라는 코드로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김유신이 ‘영웅’이 되는 과정을 영웅 되기 이전의 조건-실현 과정-완성으로 나누어, 김유신이 영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환경들을 이야기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영웅이 실패한 자이기보다는 성공한 자와 연결되는 대중적인 인상과 결합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성공지침서의 내용들과 겹치게 된다. 이것이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이다. 다시 말해 이 글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신라 명장 김유신의 면모에 대한 학술적인 글이기보다는, 김유신 설화를 조합하여 자신의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영웅)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평이하게 다룬 것이다. 삼국유사에 김유신이 개입된 설화를 조합해 보면, 김유신은 영웅이 되기 이전엔 미숙한 존재였으나 세 여신의 보호와 독립적 자자질을 획득한 자로 그려진다. 그리고 성장한 이후에 그는 선덕과 춘추, 소정방과 원효거사, 죽지랑과 네 대덕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과업을 성취한다. 이런 과업

성취의 면모가 오늘날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영웅으로서 김유신의 이름값인 것이다.

주제어 : 김유신, 삼국유사, 성공, 영웅, 위대한 타자, 여신, 내적 자질, 권위의 활용, 이류와 동류의 통합, 영웅-되기

1. 서론

이 글은 삼국유사 소재 김유신 설화를 대상으로 한다. 김유신은 김춘추와 더불어 삼국을 통일한 주역으로, 김춘추보다 더 대중적인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는 역사적 인물이다.¹⁾ 가야계로 태어나 신분적 한계에 갇혀 임금은 되지 못했지만, 왕보다 더 오랜 시간 영향력을 발휘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김유신은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²⁾ 이 글에서는 김유신이 삼한 통일의 영웅이라는 소박한(?)전제를 바탕으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김유신 관련 이야기를 종합해서 ‘무엇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웅의 전형은 고귀한 출생/시련/뛰어난 능력과 과업성취 모델³⁾로 설정하기도 하고, 7개의 서사 단락으로 영웅의 일생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 ‘영웅됨’의 조건⁴⁾을 보여주기도 하고, 조셉 캠벨처럼 분리-입문-귀환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런 유형은 신성함뿐만 아니라 제의, 신이한 능력 등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과

1) 그의 영웅성은 세월이 흘러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여 신적인 지위를 획득하여 전승된다. 지금도 강원도 강릉시를 비롯하여 충북진천, 서울의 한남동, 그리고 경북의 군위 일대에서는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으로 추앙되고 있고 전국에 10여 개의 신당에서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고 한다.(박성주·김수민, 「김유신관련 문헌사료와 설화의 비교」, 2008, 『신라문화』 21호(동국대학교 신라문화소), 203-204면)

2) 폴 존슨, 왕수민 역, 『영웅들의 세계사』, 웅진지식하우스, 2009, 8면.

3) 정재서 외 2인,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74면 재인용.

4) 조동일은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라는 논문에서 영웅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7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영태나 출생이 비정상적이었다/범인과는 다른 초월한 능력을 타고 났다/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었다.(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 동아문화 10호, 1971, 169면.)

함께 언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웅의 의미에 범인과 구별되는 그 무엇,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우월한 존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주목하는 김유신의 영웅성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룬 인간 정도이다. 이 말은 영웅의 신성한 과업 성취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 무엇이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는 성취 혹은 성공을 이룬 자를 영웅성의 핵심 요소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글의 제목이 시사하는 ‘영웅-되기’의 현실적 조건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현대판 실용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성공 지침서’나 ‘자기 관리서’ 혹은 ‘처세술’과 연관된 책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 나가는 영웅들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삼국유사 속에 등장하는 김유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구성해 본다는 점이 다르다.

2. ‘영웅-되기’의 이전 조건

‘영웅-되기’ 이전이란 말은 김유신이 자신의 영웅적 자질을 실현시키지 못한 상태, 자신의 소명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미숙한 상태를 지칭한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이야기는 영웅의 출생 과정이나 소명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 혹은 영웅으로서의 강인함을 지니게 되는 계기 등이다.

2.1. 독립적 자질⁵⁾-術士, 天神

앞서 서술한 것처럼, ‘영웅-되기’ 이전의 단계란 영웅의 출생과 인간적 흔들림, 그리고 시련등이 포함된다. 이 틀에 맞춰 삼국유사 속에 구성된 김유신의 출생담을 살펴보자.

무력(虎力) 이간(伊干)의 아들 서현각간(舒玄角干) 김(金)씨의 맏아들……유신공(庾信公)은 진평왕(眞平王) 17년 을묘(乙卯; 595)에 났는데, 칠요(七曜)의 정

5) 영웅의 주된 특성은 4가지다. 첫째, 절대적인 독립심이다…… 둘째, 독립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결의와 일관성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셋째, 언론에서 던지는 모든 화살은 일체 무시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미칠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적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폴 존슨, 상계서, 402면)

기를 타고났기 때문에 등에 일곱 별의 무늬가 있었다. 그에게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많았다.(기이 김유신조)⁶⁾

일단은 부모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뿐, 그가 김유신의 삶에 어떤 역할을 미쳤는지 혹은 아버지의 세계관이나 유산이 어떤 식으로 유전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는 아무 데도 없다. 이후에 서술되는 동생들의 이름은 춘추공과의 관계 중심으로 선별되었다. 영웅의 ‘비범한 출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란 ‘등의 7성 무늬’ 정도이며 그 자체가 신성성을 담보하기엔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삼국사기 김유신전과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김유신의 부모는 양친 모두 독립적이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침없이 획득해 나가는 인물들이다. 특히 김유신의 모친의 야무진 애정 행각은 인상적이다. 김유신의 모친, 만명은 중매도 없이 남자와 야합한다. 그것에 화가 난 부모는 그녀를 감금했지만 과감히 구멍을 뚫고 달아나 애인을 선택한다.

이런 면에서 이후에 15세에 화랑이 되어 삼한을 병합할 꿈을 꾸며 홀로 골짜기에 들어가는 유신의 모습은 그의 부모의 대범함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삼국유사에서는 김유신의 부모에 관한 언급은 위에 인용한 부분이 전부이다. 삼국유사만을 놓고 본다면 김유신은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된 존재이다. 프로이트는 아동기에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분리되어 규범과 언어적 분별을 익히는 ‘아버지의 세계’로 진입하는 정신적 변환을 겪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태어난 사회적 위치가 애매한 경우나 아버지의 당당한 역할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에 아이는 아버지의 세계에 입문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⁷⁾ 삼국유사에서 등장하는 김유신의 부모는 이미 지워진 존재이다. 이것은 김유신에게 부모의 위상은 결핍 자체거나 참만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것⁸⁾이다. 예를 들어 주몽처럼 어머니를 버리고 간 신성한 아버지와 현실

6) 이 글에서 인용된 삼국유사 본문은 직지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삼국유사 파일본이다.

7) 이창재, 「한중일 영웅 신화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대한 정신분석적 비교」, 비교민속학 30호, 2005, 211면.

8) 부모의 영향력은 (애정)결핍이나 참만이 모두 동일하게 부정/공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본다. 김유신의 부모가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은 김유신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하거나 부족한 애착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속의 아버지를 표상하는 금와의 이미지는 주몽의 내면 풍경을 균열시킬 만한 요소들이다.⁹⁾ 그러나 김유신의 부모는 아예 김유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김유신이 지니고 있는 평범한 출생 조건이며 동시에 스스로의 삶을 전면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조건이다.

게다가 김유신은 부모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에서 출발하여 자신만의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김유신의 영웅으로서의 자질이 엿보인다. 김유신의 정체성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자.

① 술객의 환생

“나(백석)는 본래 고구려 사람이오. 우리 나라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신라의 유신은 우리 나라 점쟁이 추남이었는데, 국경 지방에 역류수(逆流水; 웅자雄雌라고도 하는데, 앞치락 뒤치락 하는 일)가 있어서 그에게 점을 치게 했었소…… 이에 그의 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려 하자 그 사람은 맹세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꼭 대장이 되어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라 했소. 곧 그를 죽이고 쥐의 배를 갈라 보니 새끼 일곱 마리가 있었소. 그제야 그의 말이 맞는 것을 알았지요. 그날 밤 대왕의 꿈에 추남(楸南)이 신라 서현공(舒玄公) 부인의 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모두 ‘추남이 맹세하고 죽더니 과연 맞았습니다’ 했소. (기이 김유신조)

② 귀신의 술법을 부리는 자

신라 왕은 여러 장수에게 명하여 백제의 남은 군사를 쫓아서 잡게 하고 한산성(漢山城)에 주둔하니 고구려·말갈(靺鞨)의 두 나라 군사가 와서 포위하여 서로 싸웠으나 끝이 나지 않아 … 우리 군사는 몹시 위태로웠다. 유신이 달려와서 아뢰었다. “일이 급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신술(神術)이라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하고 성부산(星浮山)에 단(壇)을 만들고 신술을 쓰니 갑자기 큰 독만한 광채가 단 위에서 나오더니 별이 북쪽으로 날아갔다.(기이 태종추추공)

③ 33천의 한 분

신문왕(神文王) 때에 당나라 고종(高宗)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말했다. “나의 성고(聖考) 당태종(唐太宗)은 어진 신하 위징(魏徵)·이순풍(李淳風)들을 얻어

9) 상계서. 주몽이야기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 흥미로운 논문이다.

마음을 합하고 덕을 같이하여 천하를 통일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를 태종황제(太宗皇帝)라고 했다. 너의 신라는 바다 밖의 작은 나라로서 태종(太宗)이란 칭호(稱號)를 써서 천자(天子)의 이름을 참람되이 하고 있으니 그 뜻이 충성되지 못하다. 속히 그 칭호를 고치도록 하라. “이에 신라왕은 표(表)를 올려 말했다.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성스러운 신하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했으므로 태종(太宗)이라 한 것입니다.” 당나라 황제가 그 글을 보고 생각하니, 그가 태자로 있을 때에 하늘에서 허공에 대고 부르기를, “삼삼천(三三天)의 한 사람이 신라에 태어나서 김유신이 되었느니라” 한 일이 있어서 책에 기록해 둔 일이 있는데, 이것을 꺼내 보고는 놀라고 두려움을 참지 못했다. 다시 사신을 보내어 태종의 칭호를 고치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기이 태종 춘추공)

김유신은 술객의 환생이며 귀신의 술법을 부리는 자, 그리고 33천에 사는 신이다. 그를 설명하는 이런 자질들은 부모에게서 물려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천부적 재질이며 그것이 곧 영웅 김유신을 가능케 해 준다. 다시 말하자면 김유신은 범인이 범접하지 못할 세계로부터 온 존재이자, 검증하거나 대립하고 학습할 수 없는 영역의 술법을 익힌 자인 셈이다. 이것은 곧 김유신의 내면의 독특성을 말해주며 자신만의 세계에 대한 강한 확신이자,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사는 일상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김유신의 이런 정체성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영웅의 불굴의 의지와는 다르다. 이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 제약(신분적 한계)과는 상관없이, 아니 바꿔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서 획득한 자기애와 자존감을 상징한다. 이처럼 삼국유사에 나타난 김유신은 부모의 세계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며, 그 독립의 근거엔 ‘신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2.2. 온전한 남성-세 여자의 보호

기이 김유신조에서 세 여성은 보호신이다. 백석의 꺾임에 빠져 고구려로 유인되어 가던 김유신에게 세 여인이 나타나, 백석의 정체를 알려 준다. 실제 김유신조의 내용은 김유신의 영웅성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 오히려 김유신은 순진하고 어리숙하다. 어찌보면 경박하기까지 한 면모를 드러내 보인다.

나이 18세가 되는 임신(壬申)년에 검술(劍術)을 익혀 국선(國仙)이 되었다. 이때 백석(白石)이란 자가 있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여러 해 동안 낭도(郎徒)의 무리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때 유신은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의 두 나라를 치려고 밤낮으로 깊은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백석이 그 계획을 알고 유신에게 고한다. “내가 공과 함께 먼저 저들 적국에 가서 그들의 실정(實情)을 정탐한 뒤에 일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신은 기뻐하여 친히 백석을 데리고 밤에 떠났다. 고개 위에서 쉬고 있노라니 두 여인이 그를 따라와서 골화천(骨火川)에 이르러 자게 되었는데 또 한 여자가 갑자기 이르렀다. 공이 세 여인과 함께 기쁘게 이야기하고 있노라니 여인들은 맛있는 과자를 그에게 주었다. 유신은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마음으로 그들을 믿게 되어 자기의 실정(實情)을 말하였다. 여인들이 말한다. “공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백석을 떼어 놓고 우리들과 함께 저 숲속으로 들어가면 실정을 다시 말씀하겠습니다.”(기이 김유신)

줄친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유신의 행동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골몰하느라 주변의 여러 정황을 살피지 않는 외골수와 같다. 이와 같은 성향이 곧 백석이 던진 미끼를 물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고구려를 향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우연히 만나게 된 세 여인이 갑자기 이르러 동행을 청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녀들이 준 맛있는 과자를 먹고 마음을 열어 자신의 실정을 말하는 유신은 순진하기보다는 ‘삼한 통일’의 과업을 완수하려는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과대하게 떠벌리고 있는 모습처럼 비쳐진다. 이때 세 여인이 김유신의 허점을 가려주기 위해 숲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학의 심상 언어에서 여자는, 알려질 수 있는 것들의 전체성으로 표상된다. 알게 되는 존재가 곧 영웅이다. 영웅이 삶의 다른 형태인 입문의 과정을 진행함에 따라 여신의 형상은 그에게 일련의 변형 과정을 체험하게 한다…… 여성은 감각적인 모험의 정점으로 영웅을 인도하는 안내자다.¹⁰⁾

불완전한 열정에 들뜬 김유신을 가라앉히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다른 이면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 세 여인은 아직은 영웅이 되지 못한 김유신을 새로운 형태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여신이다. 그리고 이것은 작품 속에서

10) 조셉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1999, 154면.

지워진 존재였던 ‘어머니’를 표상하기도 한다. 세 여인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신화적 상징 속의 ‘여신’의 역할만은 아니다. 한 아이가 온전한 남성으로 성장하는 데 거쳐야 할 하나의 통과의례 중에 ‘여성’의 역할은 지대하다.¹¹⁾ 이 점에서 김유신은 자신의 미숙함과 허점을 덮어줄 수 있는 세 여인을 만났다. 이 여인들은 생애 최초의 여자인 어머니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 여인은 역할로 구분되기 보다는, 한 남성을 ‘온전’케 만들어 주는 ‘온전한 여인상’을 구현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그것은 세 여자의 통념적인 여자의 역할을 지칭하기보다는 여성의 미덕 혹은 긍정적 자질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유신이 만난 세 여자는 김유신에게 신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그의 이상과 열정을 펼치는 데 부합되는 완벽한 여인들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眞善美의 결합체이거나 智德體를 모두 지닌 이미지인 것이다. 김유신의 ‘영웅-되기’는 세 여인과의 조우 이후에 가능하다. 세 여인은 그를 온전한 남성으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전폭적인 ‘옹호’를 경험함으로써 그 자신의 영웅됨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서적 발판을 제공해 준다.

3. ‘영웅 - 되기’의 실현 과정

‘영웅-되기’ 실현이란 본격적으로 김유신이 자신의 영웅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장이다. 이 조에서는 김유신이 영웅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요소들을 세 가지로 설명할 것이다.

3.1. 同・異類의 통합

일단 김유신에게 ‘同類’와 ‘異類’가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자. 김유신의 동류와 이류가 결합되는 지점은 기이 태종 춘추공조예에 등장한다.

처음에는 문희(김유신의 여동생)의 언니 보희가 꿈에 서악(西岳)에 올라가서

11) 이것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장소설의 주인공이 남성인 경우가 많고, 그들에게 있어 ‘여성’이라는 상징은 어른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설정되어 있다. 최근의 ‘개밥바라기별’이나 성장소설의 고전인 ‘데미안’, 청소년의 성장을 다룬 ‘완득이’ 등등 대부분의 소설에서 남성 주인공의 성장통은 ‘여자(여자의 몸)’로부터 시작된다.

오줌을 누는데 오줌이 서울 안에 가득 찼다. …… 유신(庾信)이 춘추공과 함께 유신의 집 앞에서 공을 쳤다. 이때 유신은 일부러 춘추의 옷을 밟아서 옷끈을 떨어뜨리게 하고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가서 옷끈을 달도록 합시다” 하며 춘추공은 그 말을 따랐다. ……이에 유신은 아지(阿之)에게 이것을 명했다. 춘추공은 유신의 뜻을 알고 드디어 아지와 관계하고 이로부터 자주 왕래했다. 유신은 그 누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 꾸짖었다. “너는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이를 배었으니 그게 무슨 일이나.” 그리고는 온 나라 안에 말을 퍼뜨려 그 누이를 불태워 죽인다고 했다. 어느 날 선덕왕(善德王)이 남산(南山)에 거동한 틈을 타서 유신은 마당 가운데 나무를 쌓아 놓고 불을 질렀다. …… 왕이 “그게 누구의 소행이나”고 물었다. 이때 춘추공은 왕을 모시고 앞에 있다가 얼굴빛이 몹시 변했다. 왕은 말한다. “그것은 내가 한 짓이니 빨리 가서 구하도록 하라.” 춘추공은 명령을 받고 말을 달려 왕명(王命)을 전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 버젓이 혼례를 올렸다.(기이 태종 춘추공)

3.1.1. 異類와 연대-춘추

김유신은 자신의 여동생과 김춘추의 밀월을 계획적으로 실행시킨다. 김춘추는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이며, 당대의 여왕이었던 ‘선덕’과는 이모와 조카 사이이다. 하지만 김춘추의 어머니는 선덕여왕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려난 천명부인이다. 그리고 신라 왕실 계보상 선덕여왕은 내물왕계의 마지막 임금이자 성골의 시대를 마감하는 여왕이었고, 김춘추로부터 새롭게 무열왕계가 등극하여 해공왕까지 명맥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춘추와 선덕은 정치적 노선에서 미묘한 대립과 견제를 형성하고 있었다.¹²⁾ 이런 와중에 김유신은 김춘추와의 혼인을 통한 혈연 관계를 계획하고 그것에 김춘추도 기꺼이 응하게 된다.

여기서 선덕왕은 춘추와 문화와의 혼외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역할을 하며¹³⁾ 김유신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신라 왕실의 혈통에 편입된다. 김유신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 왕의 위엄과 대등하게 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순간부터인 것이다. 김유신은 자신의 신분적 한계와 결핍을 보완

12) 김용희는 자신의 책에서 선덕이 비담의 난에서 갑자기 죽은 사실을 김유신과 김춘추에 의한 실각으로 해석하고 있다.(김용희, 『상처입은 봉황』, 2009, 다산초당)

13) ‘화랑세기’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혼외정사였기에 관계를 드러내지 못했다고 전한다.(이종욱, 『화랑세기로 본 이야기』, 2005, 김영사, 355-356면)

해 줄 수 있는, 왕족 김춘추와 결합했다. 김춘추는 김유신에게 다른 부류의 인간이다. 그는 김유신과 태생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현실적인 능력을 따지자면 김춘추는 승전보다는 실패의 이야기가 더 많은 왕이다¹⁴⁾. 김유신이 위험을 물리치며 자신의 운명을 확신하며 돌진하는 것에 비하면¹⁵⁾ 춘추의 역할은 소극적이며 의존적이다. 하지만 김유신은 김춘추의 상처와 자존심을 치유해 준다. 백제와의 전투에서 딸과 사위가 죽어 유골마저 돌려받지 못한 그의 상처를 유신은 간파하고, 백제와의 싸움에서 백제 비장 8명과 유골을 교환하게 한 것이다. 김유신은 김춘추가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직시하고 자신을 왕과 같은 지위로 올려 줄 수 있는 왕족인 김춘추의 마음을 읽고 그와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3.1.2. 同類와 연대-선덕

이와 달리 선덕여왕은 김춘추와 알력 관계에 있지만, ‘여성’이라는 결핍을 지닌 채 ‘국왕’이라는 지위를 감당해야 하는 과잉된 자리에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여성이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 비웃음을 감당해야 하는 자이며,¹⁶⁾ 재위 기간 내내 남성들의 견제를 받으며 자신의 자리를 유지했던 인물이다. 그녀의 이런 결핍과 과잉의 불일치는 김유신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 능력과 신분적 한계라는 성격과 동일하다. 그리고 김유신이 기획한 ‘김춘추-문화’의 혼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해주는 인물이 또 ‘선덕여왕’이다. 김유신 역시 선덕왕 말년(16년)에 여성이 왕이라는 이유를 들어¹⁷⁾ 반란을 일으킨 비담의 난을 평정하여 진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선덕여왕이 재위 기간 내내 들어야 했던 ‘여성’이 왕이 되어서 덕은 있지만 위엄이 없

14) 삼국사기(김부식, 이강래 역, 삼국사기2, 한길사, 2011, 753면)를 살펴보면 김춘추가 백제 정벌에 필요한 당의 구원병을 얻지 못하고 돌아온 것과, 백제와의 전투(642)에서는 그의 딸 고타소랑과 사위 김품석이 함께 죽은 사실에 치욕을 느꼈다는 내용이 나온다.

15) 소정방이 고구려 정벌을 위해 필요한 군량을 조달하라고 요구한다. 모두들 적지에 깊숙이 들어가는 일은 위험하다고 하자, 김유신이 자청한다. 왕과 눈물을 흘리고 이별하고 곧바로 靈室에 들어가 홀로 향을 사르면서 여러 주야를 지낸 뒤 나오더니 스스로 기뻐하며 ‘내가 이번 걸음에 죽지 않겠구나’라고 말하며 떠난다.(삼국사기 김유신조, 770면)

16) 삼국유사 ‘선덕왕지기삼사’에서 첫 번째 맞춘 문제가 당나라 황제가 보낸 향기 없는 꽃의 의미이다. 그녀는 당나라 황제가 자신의 자식이 없음을 기뻐하기 위해서 향기없는 모란씨를 보냈다고 간파했다.

17) 이런 여왕에 대한 책임론은 삼국유사 ‘자장정물’이나 ‘황룡사9층탑’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는 류의 상처를 김유신이 갚아준 것이다.

결국 김유신은 왕족과의 혈연관계를 맺음으로써¹⁸⁾ 첫 번째 '영웅-되기'의 과정을 완수했다. 이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동류와 이류를 통합함으로써 가능했다. 자신의 태생적 한계에 절망하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발판으로 김춘추를 선택하고 자신의 동일한 결핍과 분열을 겪는 선덕왕의 성향을 파악한 것이다. 선덕여왕은 재위 기간 동안 자신의 위엄을 대신할 황룡사 9층탑을 건설하고 자장¹⁹⁾을 통해 사상적 통일을 시도했던 왕이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잠시 언급되는 '지귀심화' 설화²⁰⁾에서 보듯, 여성적 섬세함과 연민을 지니고 있었던 여왕이었던 것이다.

3.2. 기존 권위와 관계 맺기

'영웅'은 체제 밖의 존재이면서도 체제 안의 인물이다. 영웅성을 지니고 체제 밖에 존재한다면 그는 '신선'이거나 '기인'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웅은 체제 안에 머물면서 스스로가 하나의 시스템 혹은 세계가 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김유신 역시 영웅이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체제를 통과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권위를 지닌 인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두 가지로 대변된다. 기존의 권위를 이용하고 제거하는 것과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3.2.1. 이용하고 제거하기-소정방

기이편 태종 춘추공조에는 춘추공의 이야기보다는 김유신의 무용담의 비중이 더 크다. 그리고 김유신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은 소정방과 연결된다. 당나라 소정방과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김유신은 소정방을 이용하

18) 혈연관계에 의한 왕위 계승 방식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혼인'은 전략적인 방식이다. 이와 같은 혼인에 대한 집착을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 신무왕이 장보고와 혼인을 담보로 왕권을 유지했던 사건이다.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장보고의 반란 역시 궁파에 의해 진압되었다.(기이-신문왕 염장 궁파)

19) 자장의 고귀한 지위에 대한 세주를 보면 김유신이나 부레랑을 비유하고 있다.(의해 자장정음)

20) 실제 지귀심화 설화가 삼국유사에 등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혜동진'에서 혜공이 새끼를 꼬아 지귀의 심화로 인한 화재를 면하게 했다고 나온다.

고 과감하게 제거한다. 그 내용을 작품 속에서 살펴보자.

이에 당나라 군사와 신라 군사는 합세해서 전진하여 진구(津口)까지 나가서 강가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때 갑자기 새가 소정방의 진영(陣營) 위에서 맴돌므로 사람을 시켜서 점을 치게 했더니 “반드시 원수(元帥)가 상할 것입니다” 한다. 정방이 두려워하여 군사를 물리고 싸움을 중지하려 하므로 김유신이 소정방에게 이르기를, …… “어찌 상스럽지 못한 일이 있겠소” 하고 신검(神劍)을 뽑아 그 새를 겨누니 새는 몸뚱이가 찢어져 그들의 자리 앞에 떨어진다. 이에 정방은 백강 왼쪽 언덕으로 나와서 산을 등지고 진을 치고 싸우니 백제군이 크게 패했다. (기이 태종춘추공①)

의자왕 20년에 신라 김유신이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평정했다.(기이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②)

견훤이 김유신과 당 군사에게 패한 백제의 분함을 씻기 위해 후백제 왕을 자처했다.(기이 후백제 견훤③)

김유신은 소정방이 미신을 믿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결단력 있게 자신의 기백을 선보이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①)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후백제가 흥기했을 때, 멸망의 책임이 춘추와 소정방의 연합이 아니고 김유신이라고 지목된 것을 봤을 때(② ③), 김유신은 소정방을 충분히 이용하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신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소정방은 신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자이며, 파워 게임의 승자인 셈이다. 하지만 김유신을 소정방을 이용했을 뿐, 마음으로 복종하거나 존경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소정방이 신라까지 병합하려는 욕심을 드러냈을 때, 김유신은 그를 제거한다. 일종의 전략적 동거처럼, 소정방은 복종을 통해서 이득을 얻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처리해야 할 부정적 권위자(권력자, 강자)를 대변하고 있다.

<신라고전(新羅古傳)>에는 이러하다. “소정방이 이미 고구려·백제 두 나라를 토벌하고 또 신라마저 치려고 머물러 있었다. 이때 유신이 그 뜻을 알아채고 당나라

군사를 초대하여 독약을 먹여 죽이고는 모두 끌어 물었다. 지금 상주(尙州) 지경에 당교(唐橋)가 있는데 이것이 그들을 묻은 곳이다.”²¹⁾(기이 태종춘추공)

3.2.2. 존귀하게 대접하기-원효와 거사

원효법사(진평39년-신문왕6년)는 삼국의 통일 현장을 목격한 신라의 고승이다. 삼국유사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원효의 일화는 원효불기(元曉不羈)라는 조목에서 알 수 있듯 파계에 얽매이지 않고 나라의 동량인 설총을 낳은 것이다. 그리고 원효의 속뜻을 알아 차리고 요석공주와의 交通을 주선한 이는 태종 춘추공이다. 또 이 글에서 다루는 이야기 속에서는 김유신과 조우한다.

유신이 먼저 연기(然起)·병천(兵川) 두 사람을 보내서 그 합세할 시기를 물었다. 이때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종이에 난새[鸞]와 송아지[犢]의 두 그림을 그려 보냈다. 신라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서 원효법사(元曉法師)에게 물었다. 원효는 해석하기를, ‘속히 군사를 돌이키라는 뜻이니 송아지와 난새를 그린 것은 두 물건이 끊어지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했다. …… 그러나 이튿날 유신은 고구려 군사를 반격하여 수만명을 잡아 죽였다.”(기이 태종춘추공)

치열한 전장에서 합세할 시기를 묻는 질문에 수수께끼 같은 그림을 보내는 소정방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풀이하여 아군의 목숨을 구한 원효법사의 신통력은 인상적이다. 물론 이것은 당나라(혹은 외세)의 부조리나 억지를 상징하는 설화적 윤색이겠지만, 원효법사의 활약이 김유신의 난관을 극복하게 해 준 것은 중요한 대목이다. 원효법사와 김유신의 만남은 여기서 그친다. 이 말은 원효법사라는 실명이 지니는 위력 보다는 ‘원효법사’로 치칭되는, 신통력을 지닌 대승적인 인물이 김유신 곁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정방이 부정적인 기성 권력을 대변한다면, 원효법사는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권위를 말해준다. 이와 함께 김유신이 가까이 하고 있었던 인물로 ‘늙은 거사’

21) 이 기록은 신라고전의 말이며 세주를 달아 당사에서는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의문이라고 말하며 소정방을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이 글에서는 이런 잔주의 기능을 일종의 ‘모면용’ 정도의 언급이라고 간주한다. 이런 식의 상반된 기사나 입장 표명이 애매한 내용에 대해서 종종 모면용 세주를 달아 ‘어느 말이 옳은지 모르겠다’나 ‘두 내용을 다 실어 둔다’ 혹은 ‘알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

를 들 수 있다²²⁾. 그는 김유신의 친척인 수천의 병을 고치기 위해 투입된다. 그런데 이미 수천의 집에 방문한 인혜라는 중이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도술 대결을 벌이게 된다.

거사를 보더니 업신여겨 말했다. “그대의 형상과 태도를 보니 간사하고 아침하는 사람인데 어찌 남의 병을 고치겠는가.” 이에 거사는 말했다.

“나는 김공(金公)의 명을 받고 마지못해서 왔을 뿐이오.”

이에 인혜(因惠)가 말했다.

“그대는 내 신통력을 좀 보라” 하더니 향로를 받들어 향을 피우고는 주문을 외니, 이윽고 오색 구름이 이미 위를 두르고 천화(天花)가 흩어져 떨어졌다. …… 거사가 손가락을 한번 튀기자 인혜는 공중으로 거꾸로 올라가는데 그 높이가 한 길이나 된다. 한참만에야 서서히 거꾸로 내려와 머리가 땅에 박힌 채 말뚝과 같이 우뚝 섰다. 거사가 그곳에서 나가 버리니, 인혜는 거꾸로 박힌 채 밤을 새웠다. 이튿날 수천이 사람을 시켜 이 사실을 김공(金公)에게 알리니, 김공은 거사에게 가서 인혜를 풀어주게 했다. 그 뒤로 인혜는 다시는 재주를 부리는 체 하지 않았다.(신주 밀본최사)

김유신을 따르고 복종하고 있는 이 늙은 거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그의 도술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를 비루하게 만들 정도로 놀라웠지만, ‘김공의 명령’을 받으면 ‘마지못한 일’이라도 행동에 옮긴다. 그리고 자신의 재주를 자만하는 인혜에게 ‘변변치 못한 기술’이라며 매운 맛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늙은 거사는 인정 투쟁이나 명성에 초연한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 그가 김유신의 말에 복종을 하고 그의 부탁을 들어 준다는 것은 김유신과 늙은 거사의 관계가 단순한 명령-복종 혹은 권력자-추종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명령하달과 절대복종의 관계는 그에 상응하는 권력의 부수 효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늙은 거사는 무명이며 세상 사람들도 그가 누구인지도 모를 기인이다. 이 말은 김유신과 늙은 거사의 관계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교감과 암묵적인 존경, 지음과 같은 성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22) 또 김유신(金庾信)은 일찍이 늙은 거사(居士) 한 사람과 교분(交分)이 두터웠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밀본최사)

원효법사와 늙은 거사는 김유신이 존귀하게 대접하는 인물이다. 이들의 의미를 확장해서 설명하자면, 두 사람은 김유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해안과 통찰력으로 갈 길을 지시해 주는 멘토이자, 연장자인 셈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장자들과의 관계 맺기는 김유신이 영웅의 길을 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한다.

3.3. 근사한 조력자와의 네트워크

3.3.1. 위대한 타자-죽지랑, 네(四) 大德

김유신의 ‘영웅-되기’의 마지막 조건은 위대한 타자의 ‘도움’이다. 그 타자란 기이-효소왕대 죽지랑조에 등장하는 죽지가 그 인물이다. 효소왕대 죽지랑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죽만랑의 무리 중에 득오가 모랑리의 익선 아간의 추천으로 부산성 創直으로 뽑혀 가서 고된 노동을 하게 되고, 화랑을 푸대접하는 아간으로 인해 모랑리 사람들이 승직과 출가에서 배제된 이야기가 전반부이다. 후반부는 이보다 앞서 술종공이 우연히 만나게 된 거사가 죽어 죽지랑으로 태어나, 진덕왕부터 4대에 걸쳐 재상이 되고, 김유신의 부수가 되어 삼한을 통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죽지랑으로 환생한 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처음에 술종공(述宗公)이 삭주도독사(朔州都督使)가 되어 임지(任地)로 가는 데, 마침 삼한(三韓)에 병란(兵亂)이 있어 기병(騎兵) 3,000명으로 그를 호송하게 했다…… 공(公)이 이것을 보고 탄복하여 칭찬하니 거사도 공의 위세가 놀라운 것을 보고 좋게 여겨 서로 마음 속에 감동한 바가 있었다.(기이 효소왕대 죽지랑)

죽지랑의 자질은 거사의 품모에서 엿볼 수 있다. 일행을 위해 고갯길을 뚫고 있는 거사의 모습은 삼국 통일의 길을 준비하는 자와 상통한다. 거사의 (고귀한) 행위에 감동한 술종공은 김유신 이야기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첫 번째는 진덕왕대에 나라일을 의논하던 자리에 참석해서 알천공이 호랑이의 위협에도 놀라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던 자리(기이 진덕왕)이며, 두 번째가 죽지랑의 아버지가 된 사연(효소왕대 죽지랑)이고, 마지막은 명랑의 밀교 전통

을 잇는 고승들과 원원사를 세운(신주 명랑신인) 인물 중에 호명되고 있다.

술종공과 죽지랑은 이런 면에서 부자지간으로 만났지만, 김유신과의 교류에서는 대등하다. 술종공이 삼국 통일 이전의 자리에서 김유신과 함께 했고, 그의 자식으로 환생한 죽지랑은 진덕부터 시작하여 삼국 통일의 현장에서 김유신을 도운 것이다. 2대에 걸친 김유신 돕기는 영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위대한 타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김유신의 또 다른 자아라고도 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김유신은 홀로 골짜기에 들어가 서원하며 비법을 얻고 명상을 통해 신술을 쓰며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김유신의 영웅성은 죽지와 술종공, 그리고 신라의 고승이라고 지칭되는 네 명의 대덕과 나란히 하여 이룩한 것이다.

4. ‘영웅-되기’의 완성과 영웅적 면모

이 장에서는 삼국통일의 주역이거나 외세를 끌여들인 장본인이라는 여러 가지 시선은 차치하고, 김유신이 언급되는 이야기 속에서 그의 ‘영웅성’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다루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쳐 전 영웅단계와 영웅단계를 통과한 김유신의 ‘위대함’ 혹은 ‘영향력’은 어떻게 확인될까? 먼저 기이 진한조를 살펴보자.

신라(新羅) 전성기(全盛期)에는 서울에 17만 8,936호(戶), 1,369방(坊), 55리(里), 35개의 금입택(金入宅; 부운富潤한 큰집을 말함)이 있었다. 이것은 남택(南宅) · ...재매정택(財買井宅; 유신公庾信公의 조종祖宗) ·(기이 진한)

기이 진한조는 본격적인 신라 왕조담이 진행되기 바로 진적에 위치한다. 혁거세의 이야기에 앞서 신라의 귀족 가문을 언급하는 가운데, 김유신의 조상이 유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김유신 한 사람이 그의 조상들의 가치와 지명도를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작품을 보자.

제37대 혜공왕(惠恭王) 대력(大曆) 14년 기미(己未; 779) 4월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유신공(庾信公)의 무덤에서 일어나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준마(駿馬)를 탔는데 그 모양이 장군(將軍)과 같았다. 또 갑옷을 입고 무기(武器)를 든 40명 가량의 군사가 그 뒤를 따라 죽현능(竹現陵)으로 들어간다. 혹은 하소연하는 듯한 소리도 들려왔다. 그 호소하는 말에, ".....이제 혼백이 되어서도 나라를 보호하여 재앙을 제거하고 환난을 구제하는 마음은 잠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온데 지난 경술(庚戌)년에 신의 자손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임금이나 신하들이 나의 공렬(功烈)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신은 차라리 먼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는 나라를 위해서 힘쓰지 않을까 합니다. 바라옵건대 왕께서는 허락해 주십시오"한다. 왕은 대답한다. "나의 공(公)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公)은 전과 같이 힘쓰도록 하오." 세 번이나 청해도 세 번 다 듣지 않는다. 이에 회오리바람은 돌아가고 말았다.

혜공왕(惠恭王)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내 대신(大臣) 김경신(金敬信)을 보내서 김유신공(金庾信公)의 능에 가서 잘못을 사과하고 김공(金公)을 위해서 공덕보전(功德寶田) 30결(結)을 취선사(驚仙寺)에 내려서 공(公)의 명복(冥福)을 빌게 했다. 이 절은 김공이 평양(平壤)을 토벌(討伐)한 뒤에 복을 빌기 위하여 세웠던 절이기 때문이다.(기이 미추왕 죽엽군)

미추왕은 신라 김씨 왕족의 시조이지만, 석씨의 사위로 온전하게 왕위에 오르는 아니다. 그러나 박씨와 석씨 중심의 왕위 계승의 추가 불완전하게나마 김씨로 옮겨간 변화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김유신이 무열왕계의 마지막 왕인 혜공왕의 시대에 나타나 '더이상 나라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는 모습이나, 그의 등장에 두려움에 떨며 김경신(원성대왕)을 보내 위로하게 하는 행위는 그의 이름이 가진 상징성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다. 더군다나 김유신은 왕이 되지 못한 자인데도 김씨의 원조격인 미추왕 면전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돌아가 버리는 모습은 왕관없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김유신의 힘은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 자리에 뛰쳐 온 호랑이를 태연자약하게 제압하는 알천공의 완력(腕力)도 비슷한 것이었다(기이 진덕왕). 알천공의 완력이란 가시적인 것이며 물리적인 힘이다. 그러나 알천공의 강성함을 현장에서 지켜보던 자들도 결국은 유신의 위엄에 복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영웅성이 강제적이거나 물리적인 실력 행사와 다른 성격임을

보여준다.

물론 김유신의 영웅다운 면모는 태종과 더불어 삼국을 통일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의 영웅성은 패전 국가들이 기억하는 승전의 주체가 ‘춘추’가 아닌 ‘김유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웅성이 실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고구려 최후 정벌까지 그의 이름이 거론되어 윤색되고 있다.

총장(總章) 무진(戊辰; 668)에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인문(仁間)·흠순(欽純) 등과 함께 평양(平壤)에 이르러 당(唐)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고구려(高句麗)를 멸망시켰다. 당나라 장수 이적(李勣)은 고장왕(高藏王)을 잡아가지고 당나라로 돌아갔다……(중략) 우리 나라 <고기古記>에는 “당唐나라가 육로장군陸路將軍 공공孔恭과 수로장군水路將軍 유상有相을 보내서 신라의 김유신金庾信 등과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문仁間과 흠순欽純 등의 일만 말하고 유신庾信은 없으니 자세히 알 수 없는 일이다).(기이 태종춘추공)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이 고구려 멸망의 현장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총장 원년 무진(668)에 당 고종 황제가 영국공 이적을 보내 군대를 일으켜 고구려를 치게 했는데 우리에게서도 병사를 징발하게 하였다. 문무대왕은 군사를 내어 부응하고자 흠순과 인문을 인솔 장군으로 삼았다. 이에 흠순이 왕에게 아뢰었다. “만약 유신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후회할 일이 있을까 두렵사옵니다.”

“공 등 세 사람은 나라의 보배이라. 만약 모두 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해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는가? 그러므로 유신을 남게 하여 나라를 지킨다면, 은연중 든든함이 장성을 두른 듯하여 종내 근심이 없을 것이다”

흠순은 유신의 아우요, 인문은 유신의 생질인지라. 평소 유신을 높이고 섬겨 감히 어기지 못했는데, 이번 일을 당하여 유신에게 아뢰었다.

“저희들은 재목감이 아니온데 지금 대왕의 뜻을 좇아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유신의 가르침)……

두 공이 절하면서 “말씀을 받들어 행동해 감히 실패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문무대왕이 영국공과 함께 평양을 깨뜨리고 돌아오는 길에.....(삼국사기 김유신하)²³⁾

결국 김유신은 고구려 멸망의 현장에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김유신은 자신의 피와 지략으로 문무 이하의 장군들을 배후 조정할만큼 하나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은 종교적 믿음이 발휘하는 최면 효과처럼 막강하고²⁴⁾ 미추왕(262-282)으로부터 해공왕(-780)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왕관’을 쓰지 않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이것이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껏 대중의 기억 속에 ‘영웅’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역사 속의 ‘김유신’의 초월적 위대함이다.

5. 결론

이 글은 ‘김유신’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영웅’이라는 의미가 어떤 과정(조건)을 거쳐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즉, 삼국 통일의 업적이라는 표면적인 의미와 함께, 당대의 현실과 삼국유사 속의 관련 이야기를 조합해 그가 ‘영웅’이 ‘되는데’ 작용한 요소들을 소박하게 살펴봤다.

김유신에게 동류·이류와의 통합, 기존 권위의 활용, 근사한 조력자들과의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조건은 당대의 현실과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는 수단이었다. 김유신은 자신이 처한 신분(운명)을 극복한 인물이다. 그것도 체제의 전복을 꿈꾸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체제의 핵심을 관통하며 현실의 ‘왕’ 위에 군림하는 상징으로서의 ‘왕’이 되어 죽은 뒤 그의 이름은 신의 반열에 올라섰고 ‘영웅’의 대명사로 대중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의 이런 ‘영웅-되기’의 완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현실’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정서적 안정감 혹은 자존감의 근원을 획득하고(세 여인), 위대한/유용한 타자들과의 네트워크

23) 김부식, 이강래역, 전계서, 774-775면.

24) 삼국사기에서 김유신이 당부하는 말은 전략이기 보다는 원칙에 의거한 설교나 훈계의 성격을 지닌다.

25) 김부식이 찬하여 말하는 김유신의 업적은 중국과 협력해 삼국을 통일한 것에 그치지 않고, ‘꿀을 베고 소를 치는 아이’까지도 그를 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사람됨’의 남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죽지랑, 네 대덕)과 더불어 체제 속의 권위자와 대면하기(소정방, 원효 법사와 늙은 거사)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한계와 결핍을 극복해 나간 인물이 바로 김유신이다. 이런 점에서 김유신의 영웅성은 그가 세속적으로 ‘성공’했다는 것과 연관된다. 이것이 이 글이 지니고 있는 분석이 현대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공신화의 주인공들과 만나는 지점이다.

물론 김유신은 ‘역사’적인 인물이며, 통일신라의 기틀을 마련한 영웅이었다. 正史로 통용되는 삼국사기에 그의 전기가 3편으로 나뉘어 전해올 만큼 ‘김유신’이라는 인물의 실재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김유신’을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 영웅으로 검증된 실존 인물로 다루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꾸준히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삶 혹은 소망의 실현을 위해 일상을 견디는 凡俗한 인간들이 원하는 ‘완벽한 인간/성공한 인간’을 표상하고 있다. 이런 전제가 이 논문이 지니고 있는 대중성인 동시에, 취약점인 ‘객관성 결여’와 맞닿게 된다. 이미 영웅이었던 ‘김유신’을 이런 식으로 범속화시켜서 대중적인 성공 요소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김유신의 영웅성을 둘러싼 ‘영웅-만들기’, 혹은 ‘영웅-되어지기’와 같은 말로 부연될 수 있는 영웅성의 ‘정치성’이나 ‘민중들의 무의식’ 같은 측면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기 쉽다. 이런 객관성 결여나 학술성 보완 문제는 추후의 과제로 넘긴다.

〈참고문헌〉

- 권순열, 「삼국유사 소재의 김유신 설화 연구」, 인문과학연구 15호, 1993.
박성주 · 김수민, 「김유신관련 문헌사료와 설화의 비교」, 『신라문화』 21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소), 2008.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학10, 1971.
안창수, 「김유신전의 서사문학적 특성」, 한민족어문학회 44호, 2006.
이창재, 「한중일 영웅 신화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대한 정신분석적 비교」,
비교민속학 30호, 2005.
김부식, 이강래 역, 『삼국사기2』, 한길사, 2011.
김용희, 『상처입은 봉황』, 다산초당, 2009.
서영교, 『신라인 이야기』, 살림, 2009.
얼 쇼리스 저, 고병현 역, 『희망의 인문학』, 이매진, 2006.
이종욱, 『화랑세기로 본 이야기』, 김영사, 2005.
일연, 강인구 외 4인 역, 『삼국유사』, 이화문화사, 2002.
정재서 외 2인,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조셉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1999.
폴 존슨, 왕수민 역, 『영웅들의 세계사』, 웅진지식하우스, 2009.

〈Abstract〉

A study of Kim Yu-shin stories in Samgukyusa as the Heroism

Lee, Chung Hoon

This paper explains the stories concerning Kim Yu-shin contained in the Samgukyusa that have a code, namely Heroism In detail, the paper classifies the process of Kim Yu-shin becoming a Hero into his earlier status-realization-completion, and considers the necessary 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Kim Yu-shin to become a hero through the story. Also, this overlaps with the contents of a guide book for success that sells in the market with the combination of a popular image in which a hero is a successful person rather than a failure. This is the popular appeal that is addressed in this paper. When combining the stories in the Samgukyusa where Kim Yu-shin is involved, Kim Yu-shin was an immature person before becoming a hero. However, he is depicted as a person who acquired the protection of three goddesses as well as an independent quality. Also, after growing up, he accomplishes his achievements through various networks with Seondeok and Chunchoo, So Jeong-bang and Wonhyogeosa, and Jukjirang and the four Daedeoks. Such an aspect of his achievements provides the name value of Kim Yu-shin as being a representative hero of Korea to date. This paper explains the stories concerning Kim Yu-shin contained in the Samgukyusa that have a code, namely Heroism In detail, the paper classifies the process of Kim Yu-shin becoming a Hero into his earlier status-realization-completion, and considers the necessary

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Kim Yu-shin to become a hero through the story. Also, this overlaps with the contents of a guide book for success that sells in the market with the combination of a popular image in which a hero is a successful person rather than a failure. This is the popular appeal that is addressed in this paper. When combining the stories in the Samgukyusa where Kim Yu-shin is involved, Kim Yu-shin was an immature person before becoming a hero. However, he is depicted as a person who acquired the protection of three goddesses as well as an independent quality. Also, after growing up, he accomplishes his achievements through various networks with Seondeok and Chunchoo, So Jeong-bang and Wonhyogeosa, and Jukjirang and the four Daedeoks. Such an aspect of his achievements provides the name value of Kim Yu-shin as being a representative hero of Korea to date.

Keywords : Kim Yu-shin, Heroism, Samgukyusa, three goddesses, independent quality, networks

이 논문은 2010년 7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8월 12일에 심사완료되어 2010년 8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